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되도록 양국 군 원로 “역할 다할 것”

향군, 전 연합사령관 초청 간담회 ... 한미동맹 강화 한 목소리



향군은 11월14일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존 킬렐리, 추모의벽 건립성금모금에 감사”

존 킬렐리, 월터샤프, 제임스 서먼,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이 11월14일 향군을 방문, 김진호 회장을 접견하고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과 최근 안보현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승조, 이성출, 권오성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향군은 이날 향군 활동을 소개하고 월터 샤프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으로부터 주한미군 전우회 활동을 청취한 다음 간담회를 갖고 한미간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 분쟁, 북한 비핵화 문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며 한·미간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방위비 분

담금, 전시작전권 전환 등 당면한 안보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안보현안들이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우호관계 속에서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미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선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최근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비핵화, 지소미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하나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군원로들이 역할을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단순한 한·일간의 문제만은 아니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상징으로서 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

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전시 한국방어계획 상 증원전력 전개(TPFDD)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김진호 향군회장이 합참의장 당시 함께 연합사령관직을 수행했던 존 킬렐리 장군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김진호 회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참전용사 위로의 밤’을 열어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향군이 정성스럽게 모은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을 전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은 한미동맹 강화를 3대 안보활동 중점으로 정하고 연합사 등 주한미군부대 위문 및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한미동맹 재단과 함께 주한미군전우회(KDVA)와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는 등 혈맹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향군, 지소미아 안보위해 꼭 필요... 연장 권고 한·일간 유일한 군사협정, 전·평시 군사협력 긴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와 관련, 향군은 11월18일 성명을 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성명에서 향군은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당위성을 일본에 인식시켰으며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일본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일본이 스스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북·중·러와 동

맹 관계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평시 연합위기관리와 전시 한국방어 계획 상 증원 전력 전개(TPFDD)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전평시 북한의 기습도발, 속전속결 전략에 신속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의 대승적 조치를 역지사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결사해지의 정신에 따라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일 간의 관계가 더 견고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2면>

※11월18일 지소미아 연장권고를 담은 향군의 성명 이후 정부는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 효력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다음은 11월18일 향군이 발표한 지소미아 연장 권고 성명서 전문. <편집자 주>

대승적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히 권고 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1천만 회원 일동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최근 한일갈등과 지소미아 문제해결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고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다,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 일간의 문제만이 아닌 한 미 일 안보협력체제의 상징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향군은 이번 지소미아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연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전략적 공동운명체이다.

한일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며 역사적으로는 문화, 경제 교류가 활발했던 우방이다. 또 전략적으로는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북방대륙 세력과 군사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이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과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 합의한 바 있는 '미래협력선언' 정신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는 분리 대응하여야 한다.

안보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경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는 약화되고 있어 미국도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며 최근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모든 한일갈등문제가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미·일이 참여하는 '신 지소미아' 등 제3의 길을 모색해서라도 지소미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소미아는 전·평시 전술·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필요에 의해 추진한 협정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시 정부의 국익 우선 논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을 간과한 채 단순히 평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일간의 정보협력이라는 전술적 차원의 평가이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전략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상징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시 한 국방어계획에 방위개념은 "전쟁억제 실패시 수도권 북방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한다"이다. 이를 위해 시차별 부대 전개지원(TPFDD) 상의 주일미군을 포함한 미 증원전력이 테프콘-III 이전 단계부터 지·해·공을 통해 한반도에 증원토록 계획되어 있다.

지소미아 파괴시 시차별 부대전개지원에 필요한 한·미·일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이 원천 봉쇄될 수 있어 북한의 기습도발, 속전속결 전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등도 국회에서 "군사적 이익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소미아는 전략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전술적으로는 위기시와 전시 한국 방어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일 군 원로들도 지소미아는 꼭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2월 해상초계기 사건으로 한·일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향군회장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모리모토 사토시(森本 敏)일본 전 방위상을 비롯한 전 육상·해상·항공, 다수의 통합 마로장 등 많은 군 원로들과 한일군사갈등 해법을 논의한 결과, 한결같이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함께 번영해 나갈 동반자로서 군사·안보분야 만큼은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일간 정치·역사문제 등의 갈등이 군사우호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였다. 현재의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또 향군은 11월 14일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명), 부사령관(한국군 3명) 등 한·미 군 원로들이 모여 심층 논의한 결과 지소미아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으로서 한·일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중·러 북방세력에 대응하는 동북아 전력균형의 문제임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전쟁 발생시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로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일본에 인지시켰으며 해결방안 또한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일본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여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조건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과격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일본이 스스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일본 정부에게 촉구한다. 한국 정부의 대승적 조치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향군은 지소미아가 한국 안보는 물론 지역 안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 정부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것이다. 일본도 역지사지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자해지의 정신에 따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제외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자 한국과는 혈맹관계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결정했지만 원인 제공은 일본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이 지나치다고 생각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한일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견고하게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은 1천만 회원의 이름으로 정부에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모바일앱 오픈 안내

재향군인회 모바일앱이 12월 오픈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앱은 재향군인회 소개, 정회원가입, 향군가맹점 등 재향군인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향군 정회원가입 운영은 2020년 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군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향군 활동 홍보 및 소개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모바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쉽게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APP 다운로드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을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김진호 회장 한미동맹만찬 참석, 우호증진... 유대강화 논의



김진호 향군회장이 11월14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에 참석, 미국 및 우리정부 관계자와 환담을 갖고 한미우호 증진 및 유대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좌로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진호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뉴스초점

흔들리는 한미동맹, 북한 오판 불러 와

존 킬렐리 전 사령관이 11월13일 서울 중구 힐튼 밀레니엄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이슈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안정, 역지와 방어야말로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대화협상에 나오게 된 것은 한미연합사가 전투준비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방어의 핵심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면 세계평화에 타격이 가는 것이므로 미래는 동북아, 글로벌 차원의 질서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위해 안보협력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1월17일 태국 방콕에서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대신과 제13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요구하는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도 공감했다.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

한국·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월19일(현지시간)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불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과다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기존의 다른 합의들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주한미군 유지해야"

미 의회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인 조니 언스트 의원도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역내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그 곳에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군사위 소속 맨 설리번 의원은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데 상원의원 전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㉞

투명하고 공정한 포상제도, 구성원 사기양양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은 부하를 달리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제갈량도 "상과 벌은 조직을 원활히 움직이는 두 가지 도구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들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칭찬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수단은 포상일 것이다. 그래서 조직이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적용하고 있다.

향군도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사기양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68년부터 포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향군의 포상제도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968년 포상규정 마련 회원 사기 높이고 근무의욕 고취

1968년 5월 31일 향군 최초의 포상규정은 일반포상, 향군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포상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수시표창이고, 향군상은 년1회 재향군인의 날에 수여하는 정기포상이다. 향군상은 향군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상으로 조직운영, 사회발전, 향토건설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본상과 장려상을 수여 하도록 했다. 그 후 1972년부터는 향군상 중 사회발전 분야를 사회공익 분야로 변경하고 본상 수상자의 부모와 부인에게 장한 아버지상, 장한 어머니상, 장한 아내상을 수여해 오다 1975년에는 본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총력안보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총력안보분야를 추가하였다.

1977년 7월 22일 포상규정이 대폭 수정되었다. 크게 정부포상, 향군상, 일반포상으로 구분하고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이 추가 되면서 일반포상에 회장표창과 감사장을 포함시켰다.

이어 1983년 5월 11일 본회 정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포상규정도 크게 보강되었으며, 표창의 대상과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그 이후

1993년 3월 26일 포상규정이 일부 변경되었다. 향군상의 분야를 조직육성, 안보계도, 사회봉사, 선행부문 등 4개 분야로 바꾸고 향군상의 본상과 장려상의 구분을 없앴으며, 이때부터 향군 휘장(대회장, 공로회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들어(2001년 7월 11일) 향군상을 폐지하고 포상의 종류도 정부포상과 회장표창으로 구분되되 회장표창은 공적상(임직원 및 회원)과 협조상(대외인사)으로 나누어 공적상은 향군대회장, 공로회장, 공로패, 표창장, 협조상은 향군대회장, 공로회장, 감사패, 감사장으로 체계를 정리하면서 향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부인사에게도 포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정부·회장 표창 구분 향군대회장 수여대상 확대

현재의 표창제도는 2014년 12월 19일 일부 변경된 것이다.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표창 종류별 대상을 구체화 하였다. 정부포상은 변동이 없으며 향군대회장 수여대상을 내부는 향군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임직원 및 회원으로 하되 각급회장, 산하업체장, 각급회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외부는 향군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로 하되 지방자치체가 활성화되면서 향군활동 지원 문제가 대두되어 장관급 정부각료, 국회의원, 현역장성,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인사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예외 조항을 두어 필요할 경우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상은 논공행상을 잘 해야한다. 포상은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생명이다. 표창을 주는 사람은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받는 사람은 떳떳해야한다. '나누어 먹기식'이 되거나 연공서열로 결정하면 오히려 화를 불러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고 조직운영에 독이 될 것이다. <홍보실>

국방단신

137번째 신원확인...고 원영철 일등중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달 1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고 원영철 일등중사(현재급 하사)로 확인했다.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시작한 이래 신원이 확인된 137번째 국군 전사자 유해다.

이번 신원확인 결정적 단서는 유해의 가슴부위에서 발견된 인식표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인식표에 적힌 고인의 이름을 토대로 전사자

명부와 대화장 보고서(전사기록지)에서 기록을 확인했다. 또 유가족의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친조카, 외조카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유해와 유가족의 DNA 비교 검사를 한 결과 최종 신원이 확인됐다.

고 원영철 일등중사는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1년 8월~9월에 강원도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발생한 제1차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급감, 2022년 군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가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대전의 양상 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 드론,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상비 병력을 감축한다.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향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간부의 계급

별 복무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로 상향 조정한다. 또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한다.

병역 의무자는 2020~2022년간 33.3만명에서 25.7만명으로 급감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수요가 많아 군 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응급후송체계 콘퍼런스...119와 협력 강화

국방부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군 응급후송체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군 응급환자 발생시 치료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군 차원의 일원화된 응급후송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는 군병원, 사단의무대 관계관,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현재 국군의무사령부 의료

종합상황센터는 의무후송헬기에 의한 응급환자 항공후송을 중앙통제하고 있으나, 육로 구급차 환자후송 및 처치는 전방사단 권역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콘퍼런스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가 응급후송 분야 중앙통제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군과 119소방간 응급후송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공군20전비, 의료봉사 등 다양한 대민지원

공군20전투비행단(20전비)이 주기적인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전비는 지난 1월 충남 서산시 고북면을 시작으로 매달 부대 인근 마을을 찾아 지역주민 대상 의료지원, 시설물 수리, 이·미용 지원, 장학금 전달 등을 펼치고 있다.

11월4일 서산시 음암면 신정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의무대대와 공병대대 등에서 장병 20여 명이 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내·외과 검진과

한방침 시술을 진행했다. 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홀몸노인 가정의 전기·수도 시설을 수리하고 주민들과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20전비 봉사활동에는 서산시 자원봉사단원들도 동참해 주민들의 이발과 네일아트를 지원하며 민·군이 함께하는 봉사의 장을 만들었다. 20전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9주기 추모 행사

대전현충원서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해병대사령부가 11월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옥 일병 유가족, 참전 장병, 역대 해병대사령관, 지역기관장, 보훈단체장, 전사자 모교 후배, 현역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 '연평도 포격전 9주기 추모 행사'를 거행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아 전사자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해병대장병들은 굳건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뒷받침해 전사자들의 해병대정신을 빛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우리 해병들은 눈앞에서 포탄이 작렬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누구 하나 숨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며 "두 해병의 숭고한 희생은 창설 70주년을 맞은 우리 해병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데 정신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식은 이 사령관이 유가족과 함께 서 하사와 문 일병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 헌시 낭독, 추모 공연, 팔각모

사나이 군가 제창이 이어졌다. 추모 헌시에서는 연평부대 백주안 병장이 직접 작성한 시를 낭독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해병대 연평부대는 2010년 11월 23일 14시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했다. 이는 북한이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고, 민간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감행한 첫 사례로서 서 하사와 문 일병 등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육군 31사단, 연탄 나눔 행사

육군31사단이 11월11일 광주·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선정한 39개 민간인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를 실시해 소외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사단 부사관단이 주축이 돼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 부사관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구매한 연탄 1만2000여 장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6·25참전

용사의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특히 지난 2~3일 진행된 빛고를 드론 페스티벌에서 드론 배틀 월드컵 부문의 우승을 차지한 'GOOD 드론 31팀'이 우승상금 전액을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각 가정의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전기안전점검, 시설물 보수·청소, 무거운 물건 옮겨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 주의를 훈훈하게 했다.

1만2000여장 구매 직접 배달



해군6항공전단 주임원사단, 김장 봉사

해군6항공전단 주임원사단은 11월13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사무소를 찾아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실시, 배추 약 1500포기의 절단·절임 작업을 펼쳤다. 동해면 새마을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소외계층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고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절여진 배추는 11월15

일 김치 양념 작업 및 포장용 거머 지역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됐다.

주임원사단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밀 온정 나누고 이웃사랑 정신 실천



보훈단신

고 김홍조 하사 호국 영웅 귀환행사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11월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유가족 자택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울주군수, 군의회의장, 53사단 지역부대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참석하 가운데 고 김홍조 하사「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했다.

고 김홍조 하사는 국군 제 7사단 8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1년 2~3월 경, 유엔군 2차 반격작전 기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1년 2월11일 당시 중공군이 양평과 원주 일대에 공격을 가하자 미8군사령관은 적을 포위섬멸하기 위한 격멸작전을 계획했고 국군 제 3군단은 제 7사단을 31번 도로(영월-평창선) 동쪽의 산악지대로 진출시켜 미 10군단의 공격을 지원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1년 5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발굴되었으며 평창 면온리 일대에서 속사리-하진부리 부근 전투 간(1951년 2~3월)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김홍조 하사 유해는 유가족들과 힘을 겨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함상 취업박람회 독도함에 부스 설치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1월 12일 진해군항 제11부두에 정박한 독도함에 열린 '민·관·군이 함께하는 2019년 함상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창원지역 제대군인 취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함상 취업박람회는 취업 활동에 애로를 겪는 장병과 중소기업의 구직·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해군,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원시가 공동 주관하고 국방부, 중소기업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방전직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후원으로 80개 업체가 참가했다.

해군 창설일(11월11일)을 기념한 '2019 네이비 위크(NAVY WEEK)' 행사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군 장병 및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1월17일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수궁 중명전(앞뜰)에서 열렸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11월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유명·무명 순국선열을 한날에 공동으로 기리기 위하여 기념일을 정하기로 하고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을사늑약 체결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한데서 유래했다.

'순국선열의 날' 계기행사로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서대문독립공원(독립관)에서 '제80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도 열렸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복지회관 준공, 참전용사 복지증진

6·25참전국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 태국, 콜롬비아에 이어 3번째

국방부는 11월11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위한 복지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준공식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국제추모행사인 "틴 투워드 부산" 행사에 맞추어 개최됐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복지회관은 대지면적 729㎡, 건축면적 712.8㎡ 규모로 1층에 회의실, 교실, 사무실 등이, 2층에 다목적실, 교실, 사무실, 주방시설 등이 설치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임훈민 주 에티오피아 대사, 타켈레 우마 반티(Takele Uma Banti) 아디스아바바시 부시장과 멜레세 테세마(Melese Tessema) 한국전쟁 참전용사 협회장 등을 비롯한 참전용사 및 가족 250여명이 참석했다.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참전용사복지회관이 참전용사 분들의 복지증진과 후손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에 적극 활용되길 바라며 회관 건립이 양국 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 타켈레 우마 반티(Takele Uma Banti) 아디스아바바시 부시장은



11월1일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열린 6·25참전용사 복지회관.

"대한민국이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참전용사복지회관을 건립해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며 양국 간의 교류가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후원사인 롯데그룹은 준공식 이후 참전용사 후손 50명에게 장학금(1,800만원)을 전달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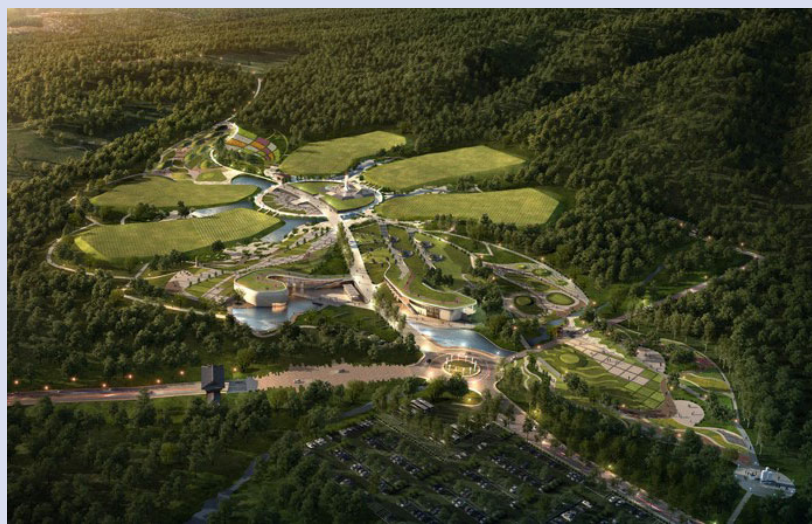
에티오피아는 1950년 6·25전쟁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3,500여 명(연

인원)을 파병하여 전사 122명, 부상 536명의 숭고한 희생을 한 국가로 삼각고지 전투 등 고지전에서 특유의 용맹함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6·25참전국 참전용사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2013년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롯데그룹 후원 하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 3월 태국 방콕에, 2017년 10월 콜롬비아(보고타)에 이어 이번 에티오피아에 세 번째로 건립됐다.

제주도에 국립묘지 조성... 1만기 묘역

연면적 7434㎡에 공사비 413억 투입, 2021년 준공



오는 2021년 준공되는 제주국립묘지 조감도.

국가보훈처는 11월28일 제주국립묘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오는 2021년까지 제주시 노형동 충훈묘지 일대 27만 4033㎡ 부지에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에는 묘 5000기·납골 5000기 등 1만기의 묘역과 현충관, 전시관, 광장, 녹지 등이 조성된다. 건축물 규모는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7434㎡ 공사비는 413억여 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720일이다.

앞서 국가보훈처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9월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유지 매입과 예산 문제로 착공이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해 사유지 매입이 해결되고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을 앞두고 2021년까지 제주국립묘지를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자유 위한 영웅들의 희생 기려

국가보훈처는 11월12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호국문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고 이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대한민국의 초청으로 방한한 17개국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116명, 참전국 외교사절, 유엔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배종훈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1부 추모(Memorial)와 2부 평화(Peace)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트럼피스트 엔스 린더만, 바리토너 마이클 딘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했다.

또 '필리핀 대학 노래하는 사절단(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inging Ambassadors)'을 특별 초청해 공연도 진행됐다.

보훈처는 2020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참전의 의미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 극복의 첨병 / 대구 수성구 향군

자생력 강화위해 역량 집중하는 모범적인 조직

안정적 임대수익, 정회원 배가 등 기본부터 충실 대구은행 사회공헌단체 기부금 ... 수익모델 넓혀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안보단체로서 그 역할에 다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향군(회장 김성문)은 1980년 동구에서 분리되어 창립한 이래 모범적인 회 운영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한 몸으로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지금의 위치로 회관을 이전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나아가 완전한 재정 자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성구 향군은 재정자립을 위해 회관 ▶임대수익 안정적 확보 ▶향군 정회원 배가 ▶지자체와 원만한 유대를 통한 보조금 증액 노력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임대수익 향상 위해 사무실 공실 방지 노력

먼저 주변상가의 공실 발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회관 임대수익의 향상을 위해 사무실 공실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 임차인들로부터 시설 확인 및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하고 있다. 특히 전동, 화장실 배수관, 수도 등 소규모 수리 및 보수는 사무국장이 직접 해결해 경비를 절약하고 있다.

또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주기적인 정보 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일정액의 임대계약시 중개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시 직접 임대 계약서를 작성, 중개수수료 절약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수성구청 및 구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매년 보조금을 증액해 오고 있다. 2017년 사업비 보조금 200만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1천만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일지 모르지만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대도



시 중심 지자체에서 1천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성구 향군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구청과 구의회에 신뢰를 주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보조금 증액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년 2회 이상 구청장과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고 향군행사시 구의회 의장 및 소관위원회 의원들을 초청, 유대를 넓혀 나가는 것 등이 그것이다.



조직 근간인 회원배가 심혈 전역예정 장병 회원가입 홍보

끝으로 조직의 근간인 회원배가를 위해 임직원 및 여성회원들을 대상으로 정회원 가입 유공자 포상제도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5군지사, 수성구대대 등 인근군부대와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해 전역예정 장병의 정회원 가입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을 동회장으로 임명하여 예비군 교육입소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펼쳐 젊은 회원 확보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수성구 향군은 8개 지역 동회장이 예비군 중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성구 향군은 정회원 확보 우수회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기도 했다.

재정자립을 위한 수성구 향군의 노력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 수성구 향군은 대구은행이 주관한 사회 공헌단체 기부금 신청 사업에 향군의 공익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기부금 100만원을 획득, 추경예산편성으로 운영비에 충당했다.

수성구 향군은 다른 지역 시 군 구 향군에 비해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5층 향군회관을 보유하고 100% 임대 원만한 지자체와의 유대관계 등 타 지역에서 부러워할 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에는 결코 소홀한 법이 없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향군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향군의 건승을 기원한다.

UN군 참전용사 영웅추대제정 기념행사



향군 미 동부지회(회장 김경구)은 11월2일 UN참전용사 James R Fisher 사무총장, 주미대사관 총영사 김득환, 주미국대사관 국방무관 표세우 장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UN군 참전용사 영웅추대제정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국가보훈처와 주미한국대사관, 미한국전 참전기념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미 동부 향군은 한미동맹 강화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선두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 복원사업위한 모금활동



향군 필리핀지회(회장 이종섭)는 11월4일 마리키나시티 시장, 한동만 대사, 필리핀 보훈처장, 한인단체장과 60여명의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비 복원사업 준공식을 거행했다.

그간 필리핀 향군은 노후된 기념비 보수공사를 위한 자원 조달을 위해 이종섭 지회장 주관으로 모금활동을 펼치는 한편 필리핀 당국과 복원사업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2020년 향군달력 제작 배포

2020년 경자년 쥐띠 해 향군 달력(3단 375mm X 690mm)이 제작 배포됐다. 2020년 향군 달력에는 향군 주요활동 이미지를 수록하여 향군 정체성을 부각시켰으며 이와함께 월별로 산하 업체 홍보이미지도 게재해 영업 홍보에 기여토록 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달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Korean Veterans Association http://www.kvva.or.kr

체육진흥투표권 우수가맹점 대상 장학금 지원

문화콘텐츠사업단, 2019 상생협력 가맹점 지원 사업 종료

향군 문화콘텐츠사업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우수가맹점 대상 '2019 상생협력 가맹점 지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가맹점 지원사업은 올해 7월 시작된 재향군인회와 가맹점 간의 상호발전을 위해 마련된 상생협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10차에 걸쳐 가맹점 10개소와 장학생 10명에게 각각 3,000만원의 기금과 1,000만원의 장학금 전달을 마쳤다.

문화콘텐츠사업단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9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내년에도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기해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천만 향군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독도 영유권 주장 용납 못한다”

인천시 향군 독도 현지서 일본 규탄대회

인천시 향군(회장 김형년)은 11월4일, 5일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안보현장 탐방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인천시 향군은 일본의 국정교과서 왜곡과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까지 독도침탈 야욕을 드러낸 일본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독도 현장에서 독도수호 및 안보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은 한·일 관계에 찬물을 붓는 행위를 넘어 비핵화 평화모드가 형성중인 동북아 정세를 역행하는 괴롭치한 행위”라며 일본정부에 과거에 저지른 침략주의적 범죄를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국정교과서 역사왜곡과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까지 독도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인천시 향군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독도에서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는 인천시 향군회원들.

순창군 향군, 사랑 나눔 행사

재래시장 찾은 어르신께 물품 운송 지원



전북 순창군 향군(회장 최병학)이 김장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순창군 향군은 11월21일 김장 준비를 위해 순창읍 전통시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김장용 고무장갑을 제공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구매한 무거운 물품 등을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옮겨 드려 호평을 받았다.

최병학 회장은 “김장 준비를 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공경의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향군, 찾아가는 안보교육

포승중 학생초청 평택 2함대사령부 방문

경기도 평택시 향군(회장 최영길)은 11월18일 포승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 청소년 안보교육행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이날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 참배한 후 조국을 위해 산화한 희생장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또 참수리 357고속정과 천안함을 직접보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안보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안보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애乡심을 가질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교사들도 학교에서 어려운 안보견학을 지원한 향군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최영길 회장은 “오늘 교육의 목적인 학생들의 안보의식 제고와 애乡심 고양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주변에 오늘의 교육을 널리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부평구 향군, ‘사랑의 김치나눔’

부평구청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160가정에 전달

인천 부평구 향군(회장 김원희)은 11월25일 부평구청에 사랑의 김장김치 160상자(상자 당 10kg)를 전달했다. 인천 부평구 향군은 해마다 재향군인회 여성회와 함께 지역 내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김장을 담가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의 한 식품공장의 협조로 회원 50여 명이 모여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갔다. 김원희 인천 부평구 향군 회장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가족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전달된 ‘사랑의 김장김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160가정에 전달됐다.

경남 울산 향군 여성회, 친교의 밤



새로운 도약 다짐 경남 울산 향군 여성회(회장 유현숙)는 11월12일, 13일 함양군 일원에서 지역문화탐방, 안보강의 등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정보 교류 및 친교의 밤 행사를 갖고 여성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충남 공주시 향군, 유해발굴 현장 방문

6.25참전용사 녀 기리고 국군장병 위로

충남 공주시 향군(회장 방재천)은 11월7일 세종 전통면 개미고개일대 6.25 참전용사 유해발굴 작업현장을 찾아 발굴 작업에 여념이 없는 공주대대장병들을 격려했다.

발굴현장인 개미고개는 6.25 전쟁 당시 남과 북을 잇는 중요 길목으로 1950년 7월8일부터 12일(5일)간 혈전을 벌인

격전지로 전투에서 많은 인명과 전력이 손실된 곳이다.

방재천 회장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지금 이 순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6.25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이라며 6.25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대전 충남 향군,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보현장 교육



대전·충남 향군(회장 박재운)은 10월29일 충남 시 군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 280여명을 초청하여 함께 강화도 평화전망대와 광성보 등 격전지 견학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순국선열들의 장렬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기리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보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발굴현장을 찾은 공주시 향군회원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10월21일 ~ 11월20일)

서울시 향군



관악구회 : 11월18일 신림감리교회에서 김장을 담귀 보훈단체 회원 50여명에게 전달하고 나눔 실천.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10월24일 제74회 UN의 날 행사에 참석, 헌화 참배하고 자유수호 위해 산화한 UN 참전용사들의 넋 기려.

부산진구회 : 11월15일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 경북 영천일대 안보현장 답사행사를 실시하고 안보의식 고취, 여성회는 11월1일 관내 호국보훈시설에 대한 정화 활동 실시.



기장군회 : 여성회는 10월30일, 31일 장안 기룡리 현충시설(무공수훈전공비)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하고 건립 제18주년 기념 행사 개최.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11월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 홀에서 거행된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



서구회 : 11월3일 관음포 이충무공 유해지, 남해 충렬사 등 남해일대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여성회는 11월3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과농가에서 봉사활동 실시.

달서구회 : 11월4일 경원고등학교 학생을 초청, 안보현장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영천호국원과 3사관학교 방문.



중구회 : 11월4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리 과수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 봉사활동 실시.

남구회 : 11월8일 501여단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북구회 : 11월22일 포스코 지역 일대로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수성구회 : 11월9일 전북 부안일대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호국정신 고양.

달성군회 : 11월8일 전남 나주시회와 19차 영·호남 동서화합의 만남의 행사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연평도에서 포격도발현장 견학과 탈북강사의 안보강연 등 특수지역 격전지 순례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고취.



남동구회 : 여성회는 남동구청 정문 앞 담방문화근린공원에서 겨울을 맞아 동해 방지와 해충을 잡기 위한 겨울 나무 옷 입히기 행사 실시. 10월24일, 25일 연평도 평화 안보수련원을 방문,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 확립.



옹진군회 : 10월28일, 29일 목포 현충공원, 6.25참전 기념탑 등 특수지역 격전지를 순례하고 안보의식 고취.

연수구회 : 10월31일 충남 예산 총의사(윤봉길의사 기념관)를 방문, 호국안보의식 함양. 11월13일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실버벨 요양원을 방문, 공연봉사.

서구회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상하이 임시정부 및 윤봉길의사 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광복회원들에게 기념모자 지원.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11월6일 관내 식당에서 수원시 지역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51사단 수원대대 간부 7명을 초청하여 안보 간담회 및 격려행사를 갖고 친목 도모. 11월5일 시청앞 88공원에서 인제동 유희가일대에서 쓰레기줍기 및 환경 캠페인 실시. 10월29일, 30일 이승복 기념관, 강릉통일안보전시관, 청간정 등지에서 2019년 안보단체 합동 안보견학행사. 여성회는 11월14일 향군회관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 후원으로 김장김치 150포기를 담가 수원시 호국보훈회관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실시.



이천시회 : 11월5일 이천시 119의용소방대 안전교육 강사를 초청,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11월13일 강릉 통일안보공원을 방문, 호국안보의식 고취.



부천시회 : 11월9일 경북 문경새재 일대에서 단합대회 행사와 산행 실시, 회원 간 화합과 단결 도모.

동두천시회 : 11월12일 무공수훈자회, 전물군경미망인회, 6·25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게 13박스(130kg)의 김장김치를 담귀 전달하는 나눔 실천.

용인시회 : 11월12일, 13일 직접 담귀 김장김치와 백미 4kg 30포를 불우이웃에게 전달.

강원도 향군



강릉시회 : 11월5일 여성회와 함께 종합자원봉사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연탄을 기탁하고 배달 봉사.

양구군회 : 11월19일 향군회관 앞에서 6·25참전용사 및 보훈회원들을 위한 사랑과 행복 나눔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화천군회 : 11월8일 양구 을지전망대 등 전방 지역에서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10월29일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보병 제37사단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11월13일 경북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임직원 안보현장견학행사, 호국의식 고양.

청주시회 : 11월2일 안보현장견학의 일환으로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과 포항함 체험관 등 방문. 11월11일 개신동 배수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10월28일 황기석 안보교수를 초청, 청주 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후 세대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 실시.



옥천군회 : 11월6일 '우리지역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현충시설 탐방.

제천시회 : 11월6일 자매부대인 3105부대를 방문, 위문품으로 음식을 전달하고 위문행사 실시.



충주시회 : 국가안보단체협의회는 11월5일 서울 전쟁기념관 및 민속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안보의식 제고 및 나라사랑 정신 고취. 청년회는 11월11일 6.25 참전용사 우중택옹을 방문, 생필품 및 연탄 1,000장 전달, 위로.

괴산군회 : 11월2일 청천면 나눔의 집을 방문, 봉사활동 실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중구회 : 11월3일 지역 내 생계곤란 참전유공자 가정을 방문하여 연탄 1,800장 전달. 11월16일 한우리신협협동조합과 함께 불우회원 5명에게 연탄 3000여장 전달.



대전 동구회 : 여성회는 10월22일 불우 이웃돕기를 위한 일일배치회 후 동구청 주관 '사랑의 나눔 천사의 손길'에 수익금 1,000,000원 기탁.

대전 대덕구회 : 11월18일 향군회관에서 김장 김치 3000kg를 담구 6.25참전유공자·월남참전유공자, 불우장병,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 등에 전달.



태안군회 : 11월4일 향군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주에 위치한 중원고 구려비를 방문, 헌화하고 순국선열 추모.

논산시회 : 11월8, 9일 향군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유엔기념 공원 등 부산 일대 안보전적지를 방문, 안보의식을 고취.

서천군회 : 10월29일 장항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초청, 강화도 일원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생 안보현장 견학 실시.

천안시회 : 여성회는 10월25일, 26일 해병대상륙작전기념관, 세병관, 총렬사 등 통영, 거제 일원 안보전적지 답사.

보령시회 : 11월14일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11월 20일 보령시청과 MOU 체결 후 관리하고 있는 여울 공원 환경정화활동 실시.

전라북도 향군

임실군회 : 11월8일 임실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북 성주군 향군을 초청, 영호남 교류 행사를 가져. 여성회는 11월14일 보훈회관 옆 광장에서 불우 독거노인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전개.



김제시회 : 11월8일 전라남도 진도군일대에서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군산시회 : 11월7일 군산 예술의 전당 시민쉼터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남원시회 : 안보단체협의회는 11월4일 남원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과 안보 및 보훈단체장 예우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전주시회 : 여성회 11월4일 안보현장견학의 일환으로 충남 예산 임존성과 의종은 형제 기념관 등 방문.

익산시회 : 10월24일 목포 참전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등을 관람, 나라사랑 정신 함양.

부안군회 : 11월11일 정구왕 안보강사를 초빙, 부안여중 강당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회.

무주군회 : 11월12일 무주종합수련원에서 청송군 향군을 초청, 영호남 국민화합 친선교류행사를 가져.

정읍시회 : 11월12일 산외면에 위치한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개관식 참석.

장수군회 : 11월16일 통영지구전적비, 충훈탑,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기념관 등 통영 지역 안보전적지를 순례, 호국정신 함양.

고창군회 : 여성회는 11월17 제17회 고창군 고인돌마라톤대회 행사장에서 봉사활동 실시.

광주 전남 향군

동구회 : 10월26일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남구회 : 11월11일 독립기념관, 현충원 등 아산, 천안일대 안보현장 견학.



광산군회 : 10월25일 청와대 경복궁 등 서울 일대 역사 유적지 안보 견학.

여수시회 : 여성회는 11월10일, 11일 춘천대첩 기념관, 이디오피아 참전기념관, 대전현충원 등을 둘러보는 안보견학행사 실시.

순천시회 : 여성회는 11월5일 충남문화유적지 탐방, 역사외식 고취.

광양시회 : 여성회는 11월8일 매천역사공원, 매천화현 생가 등 관내 현충시설 환경정화활동 실시.

무안군회 : 11월1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계룡대를 견학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11월5일 전남평화통일 학생시민기자단 DMZ 대장정 실시.

진도군회 : 11월9일, 10일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오두산전망대 등 파주시 일대 안보 현장 견학.



영광군회 : 11월1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유령제 행사지원. 11월8일, 9일 충주호유람선, 도담삼봉, 청남대 등 충북 일대에서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강진군회 : 10월24일 충훈탑 참배 및 3.1만세탑 주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화순군회 : 11월9일 국화향연 축제장 환경정화활동 실시.

장성군회 : 11월7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69주년 전남 합동 추모제 참석.

신안군회 : 10월29일 관내 독거노인 5명에게 쌀20kg을 전달, 위로.

경상북도 향군

예천군회 : 11월4일 제3260부대 2대대(예천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 격려.



영천시회 : 10월30일 화산면 소재 21항공단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청도군회 : 여성회는 11월12일 청도군자원봉사센터에서 '행복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져.

상주시회 : 11월17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7회 상주꽃감국제마라톤대회 참석 및 봉사활동 실시.

문경시회 : 안보단체협의회는 11월18일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현장을 찾아 안보체험행사 실시.

경주시회 : 건천읍회는 11월12일 계룡대 안보견학 실시.

경남 울산 향군

진주시회 : 11월8일 향군회관에서 읍 면동회 총회 시범 교육 실시.



경남 울산시회 : 여성회는 11월8일 북면 단감농가를 방문, 단감 따기 봉사활동 실시.

하동군회 : 11월6일 부산 UN전쟁 기념관 일대에서 전쟁의 참상을 상기시키고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 안보교육 실시. 10월26일, 27일 상주 충의사 및 영천 호국원, 경주 울산 일대 안보전적지 견학.

함천군회 : 여성회는 10월21일부터 31일까지 6.25참전회원 및 불우회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김해시회 : 11월13일 빨치산 토벌전시관, 산청 동의보감촌 등 거창, 산청 일대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통영시회 : 10월31일 모범학생 안보견학행사의 일환으로 충무고 학생들을 초청,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및 해군사관학교 방문하여 안보의식 고취.

창녕군회 : 창녕읍회는 11월17일 통영시 일대 안보현장 견학 및 회원 단합행사 실시.

함양군회 : 여성회는 11월19일 별빛담은 마을에서 김장봉사 활동을 실시, 독거노인 및 경로당에 전달.

울산 중구회 : 여성회는 11월8일 중구 다목적구장에서 체육대회 개최.

울산 남구회 : 11월16일 경남 산청(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시관)과 진주성 일대에서 안보현장 견학행사.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11월4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전적지를 방문,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의 열거리고 호국안보의식 고취.



제주시회 : 여성회는 11월5일 일손이 부족한 감귤농가를 방문, 봉사활동 실시.

서귀포시회 : 10월29일, 30일 국가유공자가구를 방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Turn Toward Busan' ... 유엔장병 희생 기려

11월11일 11시, 세계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 향해 묵념

‘부산을 향해, 하나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을 주제로 한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11월11일 국내외 6·25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참석자들과 부산시민들은 1분간 묵념을 통해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때 행사장에는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포 19발을 발사했다.

해외에서도 같은 시각 미국 등 참전 12개국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부산을 향한 묵념에 동참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군부대, 학생, 시민들이 묵념을 올렸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행사 전 유엔군 최연소 전사자인 호주의 제임스 패트릭 도슨트 상병 묘에 참배한 후 유가족이 방한한 캐나다 참전용사(Kenneth Wellington Norton) 묘와 영국 참전용사(Paul Joseph Keating) 묘를 찾아 평화의 사도메달을 헌정했다.

기념식에서는 턴 투워드 부산 행사 최초 제안자이자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



니(85) 씨가 ‘전우에게 바치는 글’을 낭독했으며 91년생 미국인 게리 스티븐 데아마랄은 미 제8기병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 윌리엄 로널드 크리스텐슨을 기리며 스토리텔링으로 추모했다.

또 성악가 류하나, 가수 김용진, 리틀엔젤스 등이 추모공연을 했으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도 실시됐다.

‘턴 투워드 부산’ 행사는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가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이 안장된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할 것을 제안한 이래 매년 11월 11일 11시를 기해 열리고 있다.

이번 턴투워드부산 행사를 계기로 지난 11월8일부터는 5박 6일 일정으로 17개국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116명이 방한해 의의를 더했다.

한편 올해는 부산시가 지정한 ‘유엔유크(UN Week, 10.24~11.11)’ 원년으로 평화페스티벌, 평화컨퍼런스, 세계평화기원 시민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진행되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존 킬렐리 전 연합사령관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

한미연합사령관으로 3년 5개월 동안 재직하며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는 존 킬렐리(78) 미국 육군 예비역 대장이 ‘제7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2013년 제정된 이 상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미국인 1명을 매년 수상자로 선정한다.

킬렐리 예비역 대장은 1996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제8대 연합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1999년 제1차 서해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갔다. 한국 근무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지 않아 주한미군전우회(KDVA) 부회장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KWVMF)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애쓰고 있다.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환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 추모제

철원·평강·강화 있는 지역, 가장 희생자 많아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는 11월 20일 강원도 원주시 치악체육관에서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하고 희생자가 많았던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을 기리는 추모제를 개최했다.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희생된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추모제를 주관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는 “추모제를 통해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하고 희생자가 많았던 ‘철의 삼각지대’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

히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의 삼각지대는 6.25전쟁 당시 철원·평강·강화를 잇는 지역을 일컬으며 전쟁 당시 밴 프리트 미 8군사령관이 “적이 사수하려는 철의 삼각지를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 신희현 36사단장, 박희모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장 등 보훈단체장, 회원, 군 장병,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향군장학기금

※ 기간 : 10월 24일~11월 22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기업 및 단체

• ㈜리마 대표 신상호 1(2)

▶ 개인

• 경기도 부천시재향군인회
심곡동회 회장 조상익 10
•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고문
정소두 1(9)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41)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23)
• 일반회원 다운중학교 교사
이미래 1(39)

▶ 정기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62)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52)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남 영암군 향군 여성회 향군장학기금 50만원 기부

전남 영암군 향군 여성회(회장 장미자)는 9월10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진 영암전국추석장사씨름대회 기간 중 민속음식점을 열어 얻은 수익금 50만원을 향군장학기금에 기부했다.

영암군 향군 여성회는 “작은 정성이지만 6.25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자 후손과 향군회원 자녀들이 장차 국가의 안보역군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갑종장교전우회: 12월5일 전쟁기념관에서 12월 호국인물 현양행사.

▲광복군동지회: 12월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78주년 기념식.

▲불암회: 12월11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대령연합회: 12월11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포병전우회: 12월13일 전우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

▲백골전우회: 12월14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창립54주년 기념식 및 송년회.

▲육군본부직할결사대전우회: 12월18일 아만티호텔에서 송년회.

▲해군OCS장교중앙회: 12월18일 해군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성우회: 12월19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 취임식.

▲충호안보연합: 12월20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

▲ROTC중앙회: 12월26일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이 취임식.

▲육군기술행정사관총동문회: 12월26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정기총회.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친목단체 활동

제7차 한-일 전략교류 행사



성우회(회장 유삼남)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 제7차 한-일 전략교류 행사 일환으로 JSA, 도라산,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제71주년 포병의 날 행사



포병전우회(회장 이국범)는 10월25일 육군회관에서 제71주년 포병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가을 등반대회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우승란)는 10월26일 우면산에서 가을등반대회를 갖고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

장단·사천지구 전투 전사자 추모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호연)는 11월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장단·사천지구 전투 전승을 기념하고 전사자를 추모했다.

제13대 정선거 회장 취임식



단기간부사관총동문회(회장 정선거)는 11월12일 국방컨벤션에서 창립 20주년 및 제13대 정선거 회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육군항공협회 정기총회



육군항공협회(회장 박규섭)는 11월14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회원 친목행사



재향여군연합회(회장 이재순)는 11월13일에 속초에서 회원친목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운영위원회의



정보동우회(회장 박상수)는 11월20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계룡대 안보현장 견학행사



영관장교연합회(회장 박우식)는 11월21일 계룡대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가졌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492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로엔 성문치과 병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7) 02-999-9100 : 10%

· 솔담요양병원 (충남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1055) 041-355-2002 : 10%

식당/음료

· 계룡대어죽마을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10길 17-8) 042-551-2777 : 10%

· 버블데이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115) 010-8007-6091 : 15%

· 술밭술밭갈비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107) 02-987-1069 : 10%

· 신도안오리 (충남 계룡시 장안로 31) 042-551-5292 : 현금 10, 카드 5%

· 예천추어탕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0-1) 054-652-9100 : 10%

· 조방낙지 (충남 계룡시 장안로 43) 042-841-5759 : 현금 10, 카드 5%

· 통큰낙지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98) 042-841-8900 : 단체 10% : 10%

· H. 모터스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6길 107) 02-999-4425 : 15%

· New Star golf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5) 042-862-9457 : 10~15%

· 독일지멘스보청기 (충남 서산시 고운로 33) 041-665-2210 : 30%

· 드른 디비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48-4) 042-627-0929 : 15%

· 삼화페인트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115) 010-8260-7845 : 10%

· 서울스튜디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77-6) 010-2740-6970 : 15%

· 세종장례식장 (세종시 연서면 함박로 300) 044-866-4444 : 10%

· 송림화훼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113-3) 042-822-1800 : 10%(5만원 이상시)

· 아이랜드&웬즈타운 (충남 당진시 중앙로 211-15) 041-354-0008 : 10%

· 오토컬러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239) 042-551-9139 : 현금 10, 카드 5%

· 우리들안경 (충남 서산시 안경로 201) 041-665-5006 : 30%

· 제일인쇄소 (경북 문경시 신흥로 161-3) 054-552-5353 : 1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20~30%

· 용인다보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82번길 18) 031-8021-2114 : 1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밀리토피아호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 031-727-9300 : 10%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기타

· 국민요양병원장례식장 (울산시 남구 아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리나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대성공업사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169) 042-624-7771 : 10%

· 밀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안강술무경생고기 (부산시 남구 용호로159번길 119) 051-622-4353 : 10%

· 양기순법무사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정로 38) 041-952-1401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진북로 153) 043-241-6464 : 10%

· 휴대폰왕국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80) 041-953-0009 : 20~30%

여행정보

가평 오색별빛정원전

12월6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열리는 '오색별빛정원전'은 수목원 내 전 정원을 밑그림 삼아 친환경 소재인 LED 전구를 사용하여 그려진 화려한 빛 축제의 장이다.

10만여 평의 야외 정원 곳곳을 다채로운 조명과 빛을 이용하여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표현한 야간 조명 점등행사인 오색별빛정원전은 자연과 빛의 조화를 추구하며 인공적인 조명 속에서도 한국 자연의미를 한껏 느낄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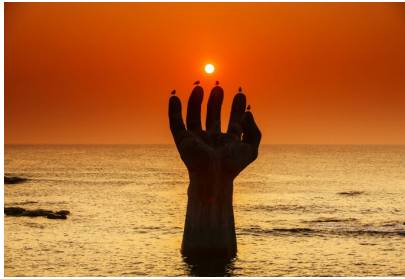


〈아침고요수목원 1544-6703〉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한반도의 가장 동쪽으로 '호랑이 꼬리 마을'이라 명명된 호미곶에서 12월31일부터 새해 1일까지 '호미곶의 빛, 포항의 생동감을 깨우다!'를 주제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이 펼쳐진다.

일출명소로 알려져 있는 호미곶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문화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경축 행사, 불꽃쇼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소원지 작성, 체험, 떡국 나눔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지난해를 돌아보고 "생동감 넘치는 새 기운"이 가득 찬 희망찬 새해를 선사할 예정이다. 〈포항문화재단 054-289-7852~7858〉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커다란 얼음분수가 만들어놓은 알프스 성에 동화나라 캐릭터들이 모두 모여 함께하는 칠갑산 겨울왕국.

칠갑산에 까만 어둠이 내리면 반짝반짝 은하수 별빛아래 화려한 웃으로 같이입는 야간개장. 겨울엔 칠갑산겨울왕국 칠갑산 얼음분수축제가 12월21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알프스마을에서 열린다. 전국최장 천장호 출렁다리 구경은 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칠갑산 얼음분수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041-942-0797~8〉



강화도 송어빙어축제

제8회 강화도 송어빙어축제가 12월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강화군 양도면 왕방마을 인산낚시터에서 열린다.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산책로, 얼음썰매 낚시체험 등 여러 즐길 거리와 송어회, 송어구이, 송어튀김, 빙어튀김 등 겨울철 별미로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산리 축제준비위원회 010-6664-4354, 010-7617-6606〉



전우여! 어디에 ...

• 조성준씨가 군 생활시절인 2003년 1년간 돌봐줬던 박수석 중대장을 찾습니다. 〈조성준 010-2942-9135〉

• 이시원씨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1사단 59포병부대 C포대에 서 운전병으로 함께 근무한 전우 도현구 병장과 관측반에서 함께 근무한 최명섭 전우를 찾습니다. 〈이시원 010-5336-8186〉

• 선주백씨가 1987년, 88년 7사단 56포병대대 사격통제반 근무 당시 작전과장이었던 박민규 소령을 찾습니다. 〈선주백 010-5436-2466〉



건강정보

'하지 정맥류' 남성 60~70대 여성 50~60대 진료 많아

증상

하지 정맥류가 있다고 하여 모두가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하지 정맥류가 외관상으로 없더라도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하지 무게감, 부종, 가려움증,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저림, 그리고 야간에 다리 근육 경련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맥류가 진행되어 그로 인한 합병증 발생 시에는 하지에 갈색의 색소 침착증이 발생하거나 습진, 궤양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치료

하지 정맥류의 치료 방법은 크게 정맥 혈관을 폐쇄하거나 제거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 방법과 수술적 치료방법, 그리고 약물경화 요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치료 방법은 의약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과 정맥 활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다. 압박 스타킹과 약품 복용이 정맥혈관의 변화를 원상태로 복원시키거나 진행을 막지는 못하지만 정맥 순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

원인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직업적으로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의 경우 정맥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여성의 경우 임신 때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이 확장되면서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수술적 치료와 비급여 치료인 정맥내 폐쇄술이 있습니다. 정맥내폐쇄술은 정맥 내 열치료(고주파 폐쇄술, 레이저 폐쇄술)와 정맥내 비열치료(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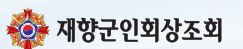
진단·검사

하지정맥류의 진단은 우선 시진을 통해서 정맥류를 진단하고 하지정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외관상 정맥류가 보이지 않아도 연관된 증상이 있는 경우 하지정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부 아래 주요 정맥 내 비정상적인 혈류, 즉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에 통증을 동반한 경우 말초동맥 폐쇄증과의 감별을 위해 동맥 조영 검사를 하기도 한다.

급여치료인 수술적 치료는 혈관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며 정맥 내 열치료는 정맥 내 카테터를 삽입하여 카테터 끝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정맥을 폐쇄하는 방법이고 정맥 내 비열치료는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은 정맥 내 열 치료와 유사하나 열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 약품을 혈관 내에 주사하여 혈관의 폐쇄를 유도하는 약물경화요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5천만 국민 누구나! 재향군인회상조회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국가대표급' 감동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상조상품	크루즈 여행상품	향군전용모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대표336 마음튼튼450 국민감동520 *월1만원대로 부담없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아노선 5박 7일(2인) 서부지중해노선 8박 10일(1인) *풀패키지, 발코니객실, 전문인솔자 동행, 전노선 500만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실내봉안담 수목장지 실내봉안담(계획)

- 상조 상품가입으로 크루즈 여행서비스까지 회원특전으로 제공합니다.
- 장례서비스에서부터 장지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모십니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 무료 병역이행상담, 회원복지물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1577-0720	여행상담 02-2218-7152	모역상담 02-2218-7143
-------------------	----------------------	----------------------